

순이익 1조원 클럽 “화학은 SK뿐”

2005년 1조5000억원으로 1400억원 감소 ... 금융업종 진입 두드러져

2005년 순이익이 1조원을 넘는 초우량기업 대열에 화학기업 중에서는 SK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26일 증권정보 제공기업인 에프엔가이드와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2005년 순이익이 1조원을 넘는 <1조원 클럽> 가입기업은 2004년과 마찬가지로 13개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1조원 클럽>에는 금융업종의 신규 진입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화학·IT기업들은 퇴보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2005년 <1조원 클럽> 가입기업은 SK, 삼성전자, 포스코, 한국전력,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SK텔레콤, 우리금융, 신한지주, 하이닉스, LG카드, 외환은행, KT 등으로 추측되고 있다.

<1조원 클럽> 신규회원은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LG카드 등 3사이다.

반면, LG필립스LCD, LG전자, 하나금융지주 등은 2005년에는 <1조원 클럽>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석유·화학기업 SK는 2005년 순이익이 3/4분기까지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4/4분기까지 포함하면 1조5000억원으로 2004년 1조6400억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김지은 기자>

<화학저널 2005/12/27>